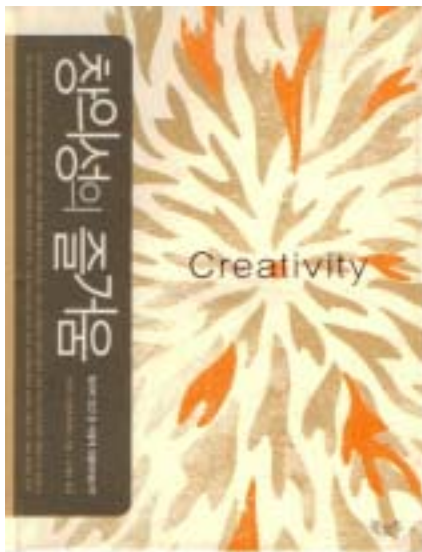


창의성의 즐거움



- 지 은 이 : 미하이 칩센트미하이
- 옮긴이 : 노혜숙
- 발행연도 : 2003
- 출 판 사 : 북로드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미하이 칩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가 쓴 「창의성의 즐거움」이란 책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하나는 창의성이란 무엇인가란 지식·정보적인 측면이다. 이 책은 91명의 세계적인 석학을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모아 창의성을 규정하고 창의성이 창출되기 위한 환경과 제도, 시스템을 다루고 있다. 창의성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문화와 사람, 그리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현장)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 책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삶과 대상에 대한 태도를 통해 창의적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예컨대 '몰입하기 위한 일곱가지 조건'(제4장 몰입과 창조의 즐거움)이라든가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습관'(제13장 창의성 향상시키기) 등이 그것이다. 이 장에서는 소재목만 죽 나열해 보아도 창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그대로 전해주며, 오늘날 현재의 자신이 얼마나 창의롭지 않게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반성하도록 만들어 준다.

인간의 삶과 창의, 환경에 관한 책인 「창의성의 즐거움」은 비록 '즐거움'이란 서명(書名)을 갖고 있지만 결코 즐겁지만은 않은, 다소 무거우면서도 현장(現場)적인 책이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창의성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그런 영역들과의 관계다. 저자는 창의성의 영역을 '언어영역', '생명영역', '미래영역', '문화영역'으로 나눈다. 그리고 개인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회적 환경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다. 예컨대 그는 창의성의 조건으로 문화, 사람, 현장을 드는데, 현장이란 창의성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 즉 그 사회의 개방적 구

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인간이야말로 가장 창의적 작품인데, 이 작품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사회구조, 환경이 받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도시에 갖는 시사점은 매우 중요하다. 창조도시가 새로운 유행의 패턴이 되고 있는 지금, 각 도시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즐거움을 보여주거나(두바이 모델) 도시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창의인구 유치(도심재생 모델)에 나서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장이다. 창조도시의 전도사인 리차드 플로리다(R. Florida) 교수는 창의성 지수로 '게이(Gay)의 수'를 측정한다. 이는 새로움과 다름을 얼마나 인정하는가를 보겠다는 것이다. 저자의 '현장'지수는 창의성의 물리적 환경지수다.

우리가 강조할 건 바로 이런 환경이다. 개인적인 가치나 삶의 문제는 책을 본 독자들이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적 조건과 사회구조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다. 과연 우리의 도시가 새로움을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칙센트미하이(Chikszentmihalyi)가 91명의 석학을 통해 본 창의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므로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의 도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도삼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소 개

Prologue 삶에서 차지하는 창의성의 가치

Part 1 창의성의 재발견

1. 창의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2. 창의적 인물이 갖는 특징
3.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몰입과 창조의 즐거움
5. 창의적 활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

Part 2 창의적 인물들의 생애

6. 창의적인 인물의 초년기
7. 창의적인 인물의 장년기
8. 창의적인 인물의 노년기

Part 3 창조활동의 영역

9. 삶의 창조자 언어영역
10.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생명영역
11. 삶의 개선과 조화를 꿈꾸는 미래영역
12. 창조적인 문화만들기
13. 창의성 향상시키기

Interview Profile